



www.eulji.ac.kr

을지대학보

THE EULJI UNIVERSITY TIMES

제299호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문보영
편집장 신희진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299호 CONTENTS

- 01 1면보도 을지대학교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 성료
- 06 사회 고양이 괴질 사태
- 08 제52회 을지사진공모전
- 학내보도 학내소식
- 문화 C커머스
- 인터뷰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 최은희 학과장
- 대학원·의료원·동문 소식
- 지식 에어컨
- 기자수첩 외국인 기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 04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
- 07 학생 저속노화
- 12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을지대학교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 성료

지난 5월 9일(목)과 10일(금) 양일에 걸쳐 성남-의정부캠퍼스에서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각 캠퍼스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재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e스포츠 ▲계주 ▲축구 ▲농구 ▲피구 ▲줄다리기 ▲미션계주 ▲천유 및 학과별 치어리딩 공연 등 다양한 경기와 볼거리로 구성됐다. 성남캠퍼스와 의정부캠퍼스는 각 학과별 대항전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성남캠퍼스는 응급구조학과가 피구 1위에 이어 다양한 종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올해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의정부캠퍼스는 개교 이후 두 번째 학과별 대항전을 진행하였고, 총점 10점으로 중독재활복지학과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는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단련하고, 선배는 물론 학과별로 유대를 쌓으며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치열한 경기 중에도 다른 학과가 경기할 때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같은 을지인의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작은 점수 차를 두고 엇치락뒤치락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며 선수들의 열기와 학우들의 응원이 한껏 불타오른 체육대회였다.



▲ 응급구조학과 종합우승 시상

학사일정

- 6월 17일(월)~6월 21일(금)
2024학년도 1학기 보강기간/학부제 전공 선택기간(재학생)
- 6월 26일(수)~6월 28일(금)
성적 열람 및 정정
- 6월 24일(월)~7월 12일(금)
계절학기 수업 기간
- 7월 29일(월)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작일
- 8월 12일(월)~8월 14일(수)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바구니 기간
- 8월 19일(월)~8월 23일(금)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 8월 20일(화)~8월 22일(목)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8월 23일(금)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신청 종료일
- 9월 2일(월)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을지재단

을지재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 박사** 소천 11주기 추모식 엄수

을지재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 박사**의 소천 1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지난 5월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 등 을지재단 산하 주요 기관장 및 보직교수,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故 범석 박영하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앞장선 국내 의료·교육계의 거목으로, 의료의 공익화를 선도하고 국가 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한 공들을 인정받아 1998년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로부터 '인간 상록수'에 선정됐고 1999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 2008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각각 수훈했다.

또한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의용군을 조직해 군의관으로 평양탈환작전에 참전하는 등 6년 여 동안 국가를 위해 소명을 다한 전쟁영웅이다.

고인은 2013년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에 안장됐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부터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달의 현충인물'과 '이달의 영웅'으로 각각 선정됐다.

을지대학교 학생처

취·창업지원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50명 취업 성공

을지대학교 학생처 취·창업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한 결과 가입자 중 5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지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4학년 재학생,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한 결과 총 205명이 가입했고, 50명이 취업했다.

취·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뉴밀레니엄센터 지하 2층과 범석관 1층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과 가입 신청을 받았다. 또한 4학년 재학생 수업 시간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담당 운영기관은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직촉진수당(또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인재추천 채용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도 취·창업지원센터는 성남고용센터와 함께 4학년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범석관 1층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개별 상담, 설명회를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구직활동 촉진과 대학 취업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을지대학교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다문화 학생 심리·정서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을지대학교 부속기관인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센터장 **홍은주**)가 2024년 경기 다문화 학생 심리·정서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 다문화 학생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문화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는 비언어적 매체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그림으로 말해요'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해결에 나선다.

'그림으로 말해요'는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과 위기상황 등 대처 능력 향상과 학습 및 진로 설계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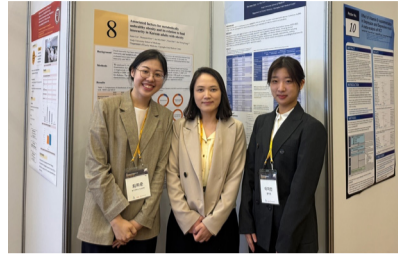
홍은주 센터장(을지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전공 교수)은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의 미술치료와 상담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다문화 학생의 심리상담과 학급 중심의 집단미술치료를 진행한다"라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심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개소한 을지대 부속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는 오랜 임상경험을 갖춘 석·박사 출신 상담사들이 아동의 정서, 발달, 행동, 언어, 학습과 가족관계 향상 등을 돕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의과대학 의학과

을지대학교 의대생들,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두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최희준 학생이 '2024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제1회 국제일차의료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2학년 최희준 학생이 '학생 영어 포스터 부문'에서 '식품 불안정과 비만 관련 동반질환의 연관성'(Relationship between food insecurity and obesity-related comorbidities)이라는 연구 주제로 우수연제발표상을 받았다.

또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이지민 학생은 '한국 비만 성인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연관요인 및 식품불안정과의 관계'(Associated factors for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and its relation to food insecurity in Korean adults with obesity)에 대한 연구발표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 두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강서영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도와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대학 간호학과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 중 귀중한 생명 살려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태훈, 백지원 학생이 간호 실습 중 신속한 대처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학생들은 실습 5번째인 지난 5월 17일 13시 34분께 부천테크노파크 2차에서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중 "화장실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다"라는 미화원의 다급한 외침을 듣게 된다.

13시 36분께 두 학생이 해당 화장실로 뛰어가 보니 좌변기 한 칸 하단부 공간을 통해 두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있었고, 김태훈 학생은 옆 칸을 이용해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칸으로 넘어갔다.

A씨 주변에는 토사물이 있었고, 수차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태였다. 김태훈 학생은 우선 백지원 학생에게 119 구조 요청하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A씨의 호흡은 거칠었으나 다행히 맥박은 정상이었다.

김태훈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대로 A씨의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고 입 안을 살펴 이물질을 제거했다. 그리고 기도막히지 않게 머리를 측면으로 돌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며 A씨를 돌봤다. 또한, 백지원 학생은 119에 A씨의 상태를 계속 알리며, 구급대원이 A씨의 상태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후 3분 정도 지난 13시 39분께 A씨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A씨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의식을 회복하도록 안마를 하며 말을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학생들 덕분에 의식을 어느 정도 차리게 된 A씨는 13시 43분께 119구급대의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현장에서 귀가했다.

김태훈, 백지원 학생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됐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탠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내년 간호사 국가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환자에게 성심을 다하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을지대학교 임희정 교수,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임희정 교수가 지난 4월 23일 성남시장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발전위원회' 안전·사회복지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정혁신 ▲교육·문화·체육 ▲안전·사회복지 ▲4차 산업 ▲도시 등 5개 분과로 각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성남시 미래설계를 위한 정책자문 역할을 한다.

성남시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 시정의 혁신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건의·제안도 한다.

이에 임희정 교수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희정 교수는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성남시 초등학교 치과치위생사업 협의체 위원, 치과 관련 학회의 학술이사 및 편집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을지대학교 대학원

을지대학교 대학원 연구주제발표 워크숍 개최 및 시상

지난 5월 8일 14시 수요일 을지대학교 대학원은 ZOOM을 활용하여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 주제발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학원생 7명(시니어헬스케어학과 4명, 안경광학과 1명, 치위생학과 2명)이 참여하여 연구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심사는 대학원 교학과장 3명의 교수가 창의성 및 독창성, 논리적 체계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논리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에 대해 심사하였고, 심사결과에 대한 시상식은 5월 22일 수요일 14시 의정부캠퍼스 일현관에서 대학원장상 수여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에게 부상과 함께 수여되었다.

이번 계기로 김관복 대학원장은 “대학원 교육·연구분야 및 전략적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으며, “워크숍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대학원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였다.

2024학년도 2학기에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화장품과학과 심다빈 석사연구원, '2024년 대한화장품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부문'에서 우수상 수상

대한화장품학회는 우리나라 화장품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저명한 화장품 연구자들이 매년 개최하는 학회이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The K Hotel 서울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5월 10일 개최되었다.



심다빈 석사연구원은 ‘인간 모발 세포 증식과 케라틴 합성 촉진을 통한 AP 콜라겐 펩타이드의 모발 성장과 품질 향상 효과’라는 주제로 소재 분야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는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연구로 진행된 결과로, 모발 성장 및 모발품질 개선제로써의 잠재적 효능이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심다빈 석사연구원은 “본 연구는 탈모방지나 헤어케어제품에 효능 소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상용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화장품 과학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다빈 석사연구원의 지도교수인 을지대학교 화장품과학전공 이창석 교수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기술을 가진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연구를 통해 의미있고 신규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SCIE 저널인 'Archives of Biological Sciences' 에 게재되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경기북부 지역사회 공익에 앞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경기 북부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화하면서 의료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을지학원의 경기 북부지역 사회공헌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건립 전후로 나뉜다.

건립 전에는 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난 등 지역이 어려울 때 등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보면 연천 등 교육기관에 2억원 지원(2012~2016년), 의정부 화재피해 주민돕기 성금 1억원 기탁(2015년),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기금 1억원 사재 출연(2017년), 의정부 경전철에 심장제세동기 30대 기증(2019년), 의정부시에 5천만원과 마스크 1만개 기부, 동두천-연천-포천-양주 및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 2천만원 기부 등이 있다.

건립 후에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의정부·동두천시 보건소, 연천군노인복지관과 협력해 모두 일곱 차례 진행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의정부·양주·동두천 보건·복지 관련 기관에서 네 차례 강좌를 열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강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3년 5월 의정부 사패산 일대에서 ‘자연아, 우리가 지켜줄게’ 플로킹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연말을 맞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연탄 5천 장을 동두천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동두천시 광암동의 난방 취약계층 세 가구에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8일에는 의정부시에 나무 1천4그루를 기부하고 천보산 일원에서 ‘숲길 지키미’ 캠페인을 통해 수목 식재와 산림정화활동 등을 펼쳤다.

이승훈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건립 이전부터 경기 북부의 다양한 곳에 손길을 내밀며 의료공익법인의 따뜻한 가치를 실현해 왔다”라며 “경기 북부와 연을 맺은 지난 2011년부터 쌓은 경험과 축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동행을 선사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동문
소식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동문과 함께하는 스승·성년의 날 기념 행사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지난 5월 14일 화요일 밀레니엄홀 강당에서 을지대학교 동문과 함께 스승·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1, 2, 3학년 재학생들을 비롯해 원우회 회장 12학번 선희창 동문과 16학번 노경래 동문이 참석하였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선희창 원우회장이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밝힌 소감에서 “이런 날들로 하여금 학생 때 교수님들께서 하셨던 말들을 떠올리게 된다. 더불어 성년의 날을 맞은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을 전한다. 멋진 물리치료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라며 동문 대표로 재학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남겼다.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

지난 5월 9일(목), 5월10일(금) 이틀간 진행된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가 막을 내렸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학우들은 운동장에서 함께 발을 구르며 더욱 돈독해졌다. 점수 격차가 벌어지는 경기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힘차게 응원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은 성남캠퍼스 응급구조학과, 의정부캠퍼스 중독재활복지학과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승패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우들에게 이번 체육대회가 후회 없는 경기였길 바란다.



2024 성남캠퍼스 체육대회 종합 우승 응급구조학과 학생회장 최미강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응급인 변화하는 응급구조학과 제30대 학생회장 최미강입니다.

Q. 종합 우승 축하합니다! 우승에 대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종합 우승은 체전 준비 기간 동안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선수분들과 함께한 노력과 학우분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 조교님들, 학우분들 덕분에 종합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전을 통해 응급구조학과의 단합력과 역량을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Q. 체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셨나요?

우승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선수들 모두 우승하고자 하는 승부욕이 강해서 선수들의 승부욕과 안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도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다행히 한 분도 크게 다치지 않고 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더욱 뜻깊은 체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체육대회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단상에서 트로피를 들고 학우분들과 응급구조학과 구호를 외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늦은 폐회식 시간까지 남아서 응원해 주신 학우분들과 구호를 외친 순간은 체육대회 경기 뿐만 아니라 제 학생회장 임기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한 학과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우 여러분, 우리 학과가 을지 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팀워크와 열정으로 우리 학과를 더욱 빛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한 모든 경험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이번 체전이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며, 응급구조학과 제30대 학생회는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과의 발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의정부캠퍼스 체육대회 종합 우승 중독재활복지학과 학생회장 김근아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움직임 중독재활복지학과 제19대 학생회장 김근아입니다.

Q. 종합 우승 축하합니다! 우승에 대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승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올해 체육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며 아쉬움 없는 경기를 치루고, 다치지 않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우리 학과가 우승을 이뤄 기쁘고 단합의 목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 우승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최고다 중재!

Q. 체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셨나요?

올해 학부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1학년 학우들이 성남 캠퍼스에서 재학 중입니다. 캠퍼스가 달라 선수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명단을 채우는 데 걱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 길을 와서 선배들과 함께 체육대회에 참가해 준 1학년 학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또한, 매 경기마다 진심으로 참가해 주

신 중독재활복지학과 학우분들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Q. 체육대회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매 경기와 경기를 응원하는 순간 등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많지만, 아무래도 1등 상금을 수령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상금을 받으며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함께 이뤄낸 결과를 나타낸 것 같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한 학과 학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기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주장분들, 경기 밖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학우분들과 교수님들, 매 경기 진심으로 임해 주신 중독재활복지학과 학우분들, 중독상담전공과 사회복지전공 학우분들, 그리고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와준 학생회 '다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먼 길을 와서 선배들과 함께 해준 1학년 학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와 학과의 단합을 보여준 이번 체육대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학과 학우들과 전공 학우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중독재활복지학과와 중독상담전공, 사회복지전공 행사에 모두 많은 관심바라며 우리 학생회 다오도 더 노력할 테니 남은 반년도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학생회장 김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을지종합체육대회 모아보기



축구



계주



학우들의 열띤 응원



미션계주



피구



단체줄넘기



e스포츠



천유의 치어리딩 공연



줄다리기



농구



반려동물도 엄연한 가족인데...

고양이 괴질 사태



박은서 학생기자 enhfarm@naver.com

지난 봄, 전국 각지에서 반려묘들이 원인 불명의 신경·근육병증을 앓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보호자들이 신고한 주 증상은 근육 마비 및 구토 증세이다. 신경과 근육이 과사해 생명체의 건강 지표에 해당하는 심장 수축과 간 수치 등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난 뒤 이를 내지는 사흘 후에 급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사태의 원인이 사료일 수 있다고 꼽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료법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가 문제였다고?

한국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재료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균, 독성 화학물질인 멜라민 검출, 유기건 사체로 만들어진 사료 등 꾸준히 사료 공정 관리와 그에 대한 처벌은 논란이 되어 왔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8.2%에 달한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가까운 수치이다. 몇 년 전 수십 마리의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가 사명만 바꿔 여전히 사료를 생산 중이다. 사료관리법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일까?

반려인을 울리는 구멍 송송 법망

현행법은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가축과 반려동물은 각각 사료를 급여하는 목적이 다름에도 하나로 뭉뚱그려 관리하는 것에 허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지난 몇 해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수의영양학회 등이 건강한 사료 제조 공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해 언론에 공개된 업체는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문제의 제품을 피할 수 없어 그

저 갑갑함만 토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문제의 사료를 언급할 경우 되레 해당 업체에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 적반하장인 격이다.

어떻게 바느질해야 하나

결국 지난 4월, 개정된 사료관리법 시행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반 내역 공개에 관한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 때 영양 성분 기재와 관련된 뚜렷한 법안도 없다. 건강한 사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한 영양분 기준에 맞춰 사료를 생산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좋은 사료를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증 시스템인데, 그 예시로 HACCP(해썹) 인증이 있다. HACCP 시스템을 사료 공정에 적용하게 될 경우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 농약, 이물질 등 반려동물 주인들이 신경 쓰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사람이 먹는 식품에 붙는 HACCP 마크와는 다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동물용 사료 HACCP 인증이 완료된 사료다.

매듭을 지어야 할 때

반려동물은 더 이상 '집 지키는 개' 혹은 '도둑고양이'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존재들이다. 무엇보다 음식은 한 생명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에 허술한 법망과 체계로 피해 당하는 반려동물과 그 주인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안전한 반려동물 먹이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반려동물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돌풍

C커머스



맹지환 학생기자 chungchungang@naver.com

요즘 들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기업의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광고에서는 밀리는 장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선전한다. 또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이 저마다의 추천 상품을 공유한다. 한편으로는 품질에 실망했다며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며 한국에서의 점유율을 늘리는 C커머스에 대해 알아보자.

C커머스란?

먼저 E-커머스(Electric Commerce)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C커머스는 이에 중국(China)을 뜻하는 C를 붙인 합성어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이이 대 표적인 기업이다. C커머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초저가를 통한 바리다매 전술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테무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C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국의 경제 침체와 규제로 인한 새로운 시장 모색이라고 해석했다.

박힌 돌 빼기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C커머스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종합 앱 국내 사용자 수는 쿠팡이 3,086만 명, 알리가 887만 명, 테무가 829만 명이었다.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국내 경쟁 업체들을 추월했다. 이러한 호조

에 C커머스 기업도 한국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사업에 3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쉬이이는 배우 김유정을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큼 낮은 품질의 제품이 많고,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문 정보와 연락처 등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는 약관으로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엇갈린 희비

급작스럽게 찾아온 중국발 돌풍에 여러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쿠팡은 1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국내 여러 소규모 기업은 가격 경쟁에 밀리며 폐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울상을 지은 것은 아니다. 네이버는 E-커머스 사업에서는 경쟁자지만, C커머스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이 자연스레 광고 수익으로 전해지며 좋은 실적을 냈다. 정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율 안전 협약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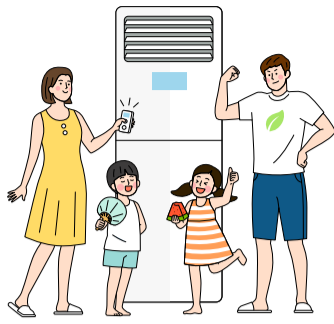
메기인가 교란종인가

C커머스의 등장에 소비자의 입장은 갈린다. 몇몇은 독점 형태에 가까운 국내 E-커머스 시장에 C커머스가 메기로 작용하여 국내 기업과의 경쟁으로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두었다가는 시장을 잠식하여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도 존재한다. 결국 메기의 역할은 미꾸라지를 생겼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먹어치우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발명품

에어컨

김태경 학생기자 eunursing@naver.com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햇볕이 내리쬐는 야외 대신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2019년 기준 국내 에어컨 보급률을 보면 한 가구당 한 대가 설치되어 있을 만큼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 편리한 기기 뒤에 복잡한 기술과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본 기사에서는 에어컨의 발전과 함께 그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초의 에어컨은 여기서 시작했다

에어컨이란 에어컨디셔너(Air Conditioner, AC) 줄임말로 온도, 습도 등 공기의 상태를 조절하는 기계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한국에서의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냉방기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를 일컫는다. 현대적인 에어컨의 원형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발명가인 윌리스 캐리어(Willis Carrier)에 의해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책과 옷감을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용 에어컨의 보급이 이루어져 일반 가정에서도 에어컨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식 에어컨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동굴이나 특정 구조물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냉방 방식을 사용해 왔다.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지는 석빙고, 고대 페르시아의 윈드캐처와 같은 건축물은 이러한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의 대표적 예시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에어컨

에어컨은 열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상전이'를 냉매에 발생시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암모니아, 프레온가스 등 액체 상태의 냉매가

압축기에 의해 압축, 가열되며 가스 상태로 변한다. 가스화된 냉매가 열교환기(콘덴서)로 이동하면, 주변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방출하면서 냉매의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냉매는 응축열을 내보내며 액체 상태로 다시 변한다. 이후, 압축기에서 압력이 감소하며 냉매가 다시 가스로 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냉각되어 실내의 공기를 냉각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에어컨은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다.

편리한,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 단점

에어컨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와 같은 열대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는 에어컨의 대규모 사용이 기후 변화를 가속한다고 주장한다.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는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에어컨의 냉매가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으며, 오존층의 파괴로 열섬 효과가 증가하여 도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매가 아닌 친환경 냉매의 사용, 에너지 효율의 향상, 태양 에너지 및 지열 에너지 활용 등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에어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적 방식의 에어컨을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에게 이롭도록

날씨를 조절하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어컨 산업은 친환경 냉매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등의 개발로 지속 가능한 냉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0억 인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기 관리

저속 노화

윤채연 학생기자 wkofcy@gmail.com



근래 실제 나이에 비해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은 '가속 노화(Accelerated Aging)' 현상이 청년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20, 30대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청년들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고혈압은 약 45%, 당뇨 환자 역시 74%가 증가했고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KBS 1TV 건강프로그램에서 "지금의 2030 세대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노화하고 더 오랜 기간 만성질환을 겪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청년층의 노화는 이전 세대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자극에 길들여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식단을 의식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기 쉽다.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식과 배달 업계의 호황, 마라탕과 탕후루의 유행과 함께 청년층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첨가물 함량이 높고 초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흡수가 빠르며 식사 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유발한다. 이는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근육이 아닌 지방과 간에 쌓이게 해 비만과 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한다.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영양 섭취와 식습관이다. 자극적인 음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또한 채소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 노화를 방지해야 한다.

저속 노화 식단

정희원 교수는 이를 위해 '저속 노화 식단'을 제안했다. 저속 노화 식단은 가속 노화를 지양하고

노화를 늦추는 관리법이다. 저속 노화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의 혼합형인 마인드(MIND) 식이요법의 한국형이다. 실천 시 부종이 빠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여러 대사질환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탁월하다. 저속 노화 식단은 기본적으로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핵심은 쌀밥이나 밀가루 대신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4:2:2로 하는 잡곡밥을 식단에 넣는 것이다. 밥에 올리브오일 1T, MCT오일 2T, 달걀 프라이 하나, 간장을 넣고 반찬과 두부 된장국을 곁들이면 영양분 균형과 미네랄,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24시간 불린 귀리와 렌틸콩을 사용하거나 백미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즐겁게 건강해지다

식습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된 SNS를 통한 식단 공유가 저속 노화 식단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이다. 현재 청년층 건강관리의 주된 키워드는 '즐거움'과 '공유'다. 저속 노화 식단을 찍어서 올리거나 헬스장에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리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 공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안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몸과 건강 모두 챙기는 건강 관리법인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는 즐거움에 해당한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관리는 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던 때와는 달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관리 자체가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내 몸을 사랑하자

즐거움을 추구하고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느리고 건강하게 가자는 것이 추세인 요즘, 저속 노화 식단을 먹고 헬시 플레저의 태도를 갖는 것을 제안한다. 수명이 늘어나고 앞으로 더 긴 시간을 살아갈 청년 세대들은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는다면 긴 기간 '유병장수'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현상이지만 일상 속 습관을 바로 세우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우리는 일찍부터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제52회 을지사진공모전

따뜻한 봄이었을지



함께라 더 따뜻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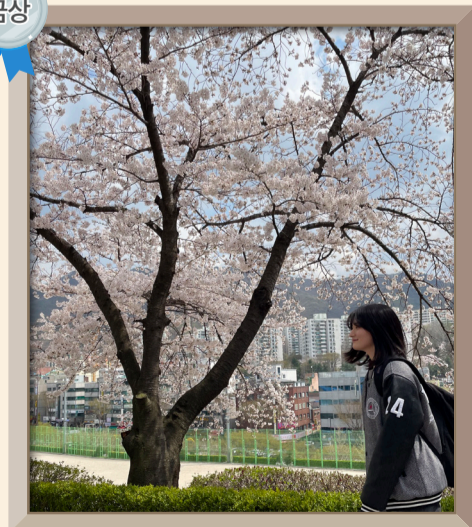
이예원 | 임상병리학과(성남)

안녕하세요. 대상을 수상하게 된 임상병리학과 이예원입니다. 저는 주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하게 된 생각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제목을 주제에 맞춰 라임을 만들어보고자 했고, 두 번째로는 봄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따뜻함'을 사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이 뭘까? 먼저 고민해 봤는데요, 역시 동기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따뜻하고 즐거웠던 거 같아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심사위원 분들께서 이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자는 한 명이긴 하지만 사진에는 저희 동기 세 명이 같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동기들에게 가장 크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로스로 전달하는 수줍은 마음

이수민 | 장례지도학과

추로스로 전해나가는 수줍은 마음으로 금상 수상한 장례지도학과 이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2학년인데 작년에는 사진전에 대해 잘 몰라 참가를 못하고, 올해 에브리타임에서 홍보 글을 접해 처음으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품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이렇게 올해 출품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도 꼭 사진전에 출품을 해서 꾸준히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양세원-을지대=0

양세원 | 물리치료학과

안녕하세요, 금상 수상하게 된 양세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봄을 더 확실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전에 냈던 사진을 찍었을 당시 물리치료학과 선배님, 동기들과 함께 벚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진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 거리를 걸을 때면 그때 찍었던 사진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분들의 사진을 보며 을지대에서의 따뜻했던 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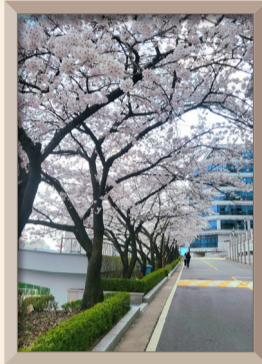
을지대학교 학보사에서 주관한 제52회 을지사진공모전 '따뜻한 봄이었을지'가 지난 5월 6일 막을 내렸다.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벚꽃과 학우들의 우정이 가득 담긴 사진은 지난겨울의 차가웠던 냉기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참가해준 학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길 바란다.

봄을 만끽하는 을냥이 3



은상 최사랑 아동학과

시험기간 등교길



은상 김가은 의료IT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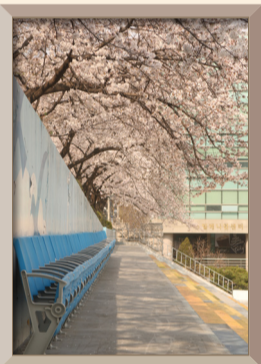
봄날의 청춘에 꽃히다



은상 임수이 장례지도학과



봄이와도 - 로이킴 말고 경민킴



동상 김경민 물리치료학과

벚꽃 아래서 기다릴게



동상 김태연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사랑



동상 박지산 응급구조학과

탄탄대로



동상 주민석 간호학과(의정부)

벚꽃 아래 푸른 을지



동상 최은진 간호학과(의정부)

만개한 벚꽃처럼
을지대 학생들도 만개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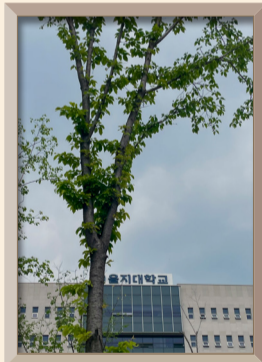
동상 김조현 간호학과(성남)

처음 가본 성남캠퍼스,
벚꽃이 반겨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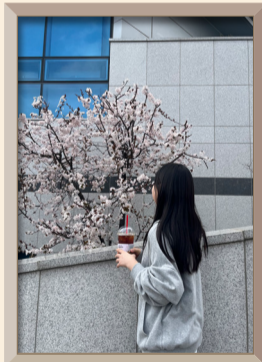
특별상 김준희 임상병리학과(의정부)

나무 한 그루



특별상 박여경 임상병리학과(의정부)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



특별상 윤예진 물리치료학과

빛나는 마음의 을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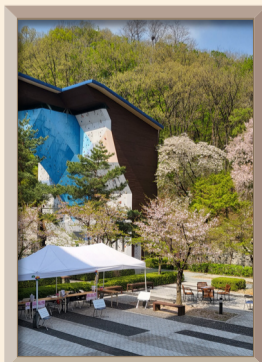
특별상 이소현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을지와 봄



특별상 장유진 의료홍보디자인학과

봄과 을지



장려상 김가은 의료IT학과

꽃이피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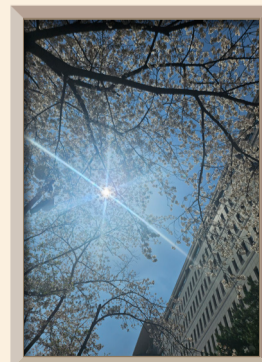
장려상 김나현 임상병리학과(성남)

벚꽃 사이에 피어난 하트



장려상 박지수 식품산업외식학과

여섯 개의 팔로 어여쁜 벚꽃을
감싸안은 따뜻한 태양



장려상 서윤선 식품산업외식학과

봄을 담아서



장려상 이예원 임상병리학과(성남)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
최은희 학과장

나이팅게일 선서식으로 가까워진 간호사의 꿈을 응원하는

지난 4월 26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는 간호학과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었다. 2024년은 의정부 캠퍼스에서 준비하는 해였기 때문에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장님을 만나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 여쭙보고 간호학과장으로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아보았다.

최은진 학생기자 eunjin7522@naver.com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 최은희 학과장입니다. 현재 지역사회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매해 3학년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끝내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원칙을 담은 내용의 선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근대 간호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선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Q. 나이팅게일 선서식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준비는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장소, 비용, 행사 내용, 내빈, 초대장, 포스터, 현수막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논의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학과 회의를 통해 일정별로, 내용별로 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담당자들은 시기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 조교 선생님들도 큰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은 이 행사를 위해 선서문을 외워야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 준 간호학과 학생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Q.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하시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3학년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선서를 통해서 임상실습 전에 자신의 간호행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이 간호학과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개인의 이익 없이 공동체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요. 상대방 의견이 더 맞을 때는 자신을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함께 했다는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사가 될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십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선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간호학과에서 중요한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간호학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19 이전에도 감염 예방과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3학년 대상으로 비교과로 감염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교과로 운영했던 과정을 전공선택으로 전환하여 올해부터 '감염 교육 입문', '감염 교육 기초', '감염 교육 심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감염프로그램을 교육할 것인데요.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감염 교육에 대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처음 계획하고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내용을 잘 구성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간호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코로나19 동안에 학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수동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앞에서 질문도 안 하고,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MT를 가 보고 싶다고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저요. 학생들이 주도해서 장소도 섭외하고, 학생들과 조율하고, 예산도 모았어요.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기특하고, 제가 기쁜 거예요. 마침, 의정부에서 동아리를 만들면 예산 지원도 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벌써 3학년이네요.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 보고 싶다고 하고,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가고시 교과목이 아닌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함께 영화를 보는 겁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콜라도 마시고, 팝콘도 먹고,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을지대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로 분야는 미래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쌓는 지식과 기술이 정말 보람되게 쓰일 미래가 곧 올 것이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업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도 열심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을지대학교 학보사

인스타그램&카카오톡 3차 인증샷 이벤트



'제299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 6. 12(수) ~ 2024. 8. 23(금)
당첨자 발표	2024. 8. 30(금)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당첨 인원	20명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문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이벤트 참여방법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보를 열람한다. ② 학보사 인스타그램(@eulji_press) 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처한다. ④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	---

- 유의사항**
-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제도 vs 차별적 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난 2024년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간행물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찬성 **최은진 학생기자:** 난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가사도우미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라 은퇴를 앞두고 있고, 새로운 노동력은 공급되지 않아 돌봄 노동을 할 인력이 계속 줄고 있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면, 인력난도 해소되고 각 가정에서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야. 결과적으로 출생률 상승에도 도움이 되겠지.

반대 **맹지환 학생기자:** 은진이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해.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고, 한국은 고용이나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의 비준국이야.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 차별 또는 직업에 대한 귀천을 직접적으로 따지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굳이 한국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

찬성 **설지은 학생기자:**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환이 의견에는 나도 동의해.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 10년간 약

10%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23% 상승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텐데, 가사도우미의 높은 임금이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거야.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여 출생률 견인에도 도움이 될 거야.

찬성 **이민서 학생기자:** 나도 지은이 의견과 같아. 아직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반론도 있겠지. 하지만 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장려할 수 있을 거야.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 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한다면 막연한 불안도 사라질 거라고 봐.

반대 **강주연 학생기자:** 이 정책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과거 캐나다의 경우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내국인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하락했어. 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등 근본적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국적에 따른 차별은 옳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봄서비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정부는 변화하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298호 소리엽서 당첨자

제298호 소리엽서 퀴즈

Q. 딥페이크 제작 기술 중 하나로써 생성 모델과 판별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계학습 방식은 무엇일까?

298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GAN

제298호 소리엽서 당첨자

간호학과(성남) 이승창, 간호학과(의정부) 남지우, 간호학과(의정부) 설지은, 간호학과(의정부) 신민경,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김태연, 의료공학과 차민수, 의학과 윤희봉, 의학과 임제인, 의학과 함나경, 의학과 장세희

제299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소리엽서

제299호 소리엽서 퀴즈

Q. 편안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몸과 건강 모두 챙기는 건강 관리법을 지칭하는 단어로, 극단적인 방법 없이 건강관리 자체가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자기관리법은?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온라인 소리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299호 소리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학과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후원방법 01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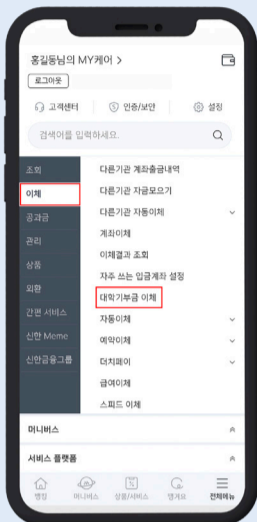
발전기금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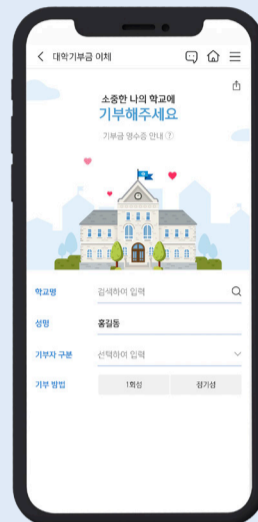
장학기금 QR코드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메뉴 ▶ 이체 ▶ 대학기부금 이체



학교명 검색



① 발전기금: 을지대학교 선택
② 장학금: 을지대학교(성남) 선택

후원방법 03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MICR 지로영수증 (고객용)	금융결제원 승인 제 119630호	지로통지서 (금융기관용)
지로번호 7559635	MICR 지로번호 7559635 금액 30000 원	
금액 30000	[기입요령]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1 2 3 4 5 6 7 8 9 0	
주소	주소	
후원자명	후원자명	전화번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금융기관의 수납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031) 740-7467 팩스: (031) 740-7469	수납인
을지대학교 (발전기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전화: (031) 740-7467 팩스: (031) 740-7469	한주전산(주) T.031-904-2510 * 이 용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남이 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지로번호 Code	
	7559635	13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동문 을지대학교의료원 할인 혜택 안내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을지대학교 재학생·동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재학생

구분		본인(%)	직계(%)	
접수비(진찰료)		100	-	
급여	외래	30	10	
	입원	행위별	30	10
		신포괄	15	5
비급여	상급병실료	30	10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20	10	
	제증명	20	10	
	종합검진	30	20	
	PET-CT	30	20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동문

구분		본인(%)	직계(%)	
급여	외래	15	10	
	입원	행위별	15	10
		신포괄	10	5
비급여	상급병실료	15	10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10	10	
	제증명	10	10	
	종합검진	20	20	
	PET-CT	10	10	